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김다* | 학번 |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Vancouver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기간 | 2017. 8. 6(일) ~ 8. 27(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학교가 큰 편은 아니지만 캠퍼스 전체가 예쁘고 깔끔합니다. 다운타운과 멀지 않고 스카이트레인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주로 저녁을 다운타운에서 해결했습니다. 학교주변에도 맛집이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 수업 |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레벨테스트를 진행 후 일본, 대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레벨테스트는 전부 듣기 문제였고 토익문제와 유사합니다. 수업은 우리나라 한 방향적인 수업방식과 다르게 선생님이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조별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답을 찾는 수업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문화차이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고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과제는 홈스테이 가족 인터뷰, 저널쓰기, 발표준비 등이 있었고 저널은 선생님께서 첨삭해 주십니다.</p> |
| Activity |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일주일 한두 번 정도 activity를 진행하는데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 활동은 발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쿠아리움이 스탠리파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대여하여 2시간정도 둘러보기 좋습니다. 박물관 옆에 키칠라노 해변이 있으니 들려서 구경하시고 local이라는 펍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펍보다 맛과 가격이 적당합니다.</p> <p>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은 편하게 구경하고 오면 되지만 휘슬러나 카약킹을 할 때에는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긴 옷을 꼭 챙겨가세요. 휘슬러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지만 정말 좋습니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아침, 저녁은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덥습니다. 하지만 습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선글라스, 긴옷, 선크림 꼭 챙겨가세요. 여름에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p> |
| 안전 | <p>현지 안전 상황</p> <p>크게 위험한 지역은 없지만 개스 타운 옆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면 홈리스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p> |
| 숙소 |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집 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한 번에 모아서 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건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 구겨지는 옷은 따로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p> |
| 식사 |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평일 아침은 시리얼을 먹었고 주말 아침은 팬케익과 에그 스크램블을 해주셨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나 주먹밥, 라자냐를 싸주셨고 과일이나 채소, 쿠키, 머핀을 간식으로 싸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라면이나 핫반을 가져가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은 매일 밖에서 사먹었는데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 여러 나라 음식을 맛 볼 수 있습니다.</p> |
| 교통 |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통학은 버스를 한번 갈아타거나 버스와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하거나 매일 달렸습니다. 시간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 구글지도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버스는 대부분 10분에서 20분마다 지나갑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1,755,0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여행자보험 | 31,966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음식 | 450,000원 | 주로 저녁 밖에서 해결 |
| 기념품 | 200,000원 | 와인2, 시럽, 화장품 |
| 입장료, 교통비(페리) | 63,000원 | 캐필라노 입장료, 빅토리아 페리왕복 |
| 유심칩 | 60,000원 | 한국에서 구입 |
| | | |
| 합계 | 773,000 | 항공료, 보험 제외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3주 동안 학교나 홈스테이에 사람들과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계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 어디에 갈 것인지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세우기보단 어디가 유명한지 어디를 둘러보고 싶은지 간단하게 메모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황에 따라 목적지를 정하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서 가져갈 물건은 가격을 알아두었다가 마지막 주에 저렴한 곳에서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런던드러그나 개스타운 기념품가게 중 세금을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세요. bbw나 빅시 로션은 세일할 때 구매하시고 MAC립스틱은 면세점에서 사는 것이 더욱 저렴합니다. GAP이나 몇몇 캐나다 브랜드는 세일할 때 저렴하지만 대부분의 옷은 질에 비해 한국보다 비쌉니다.

환전 시에는 되도록 소액권으로 받으세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옷은 얇은 긴팔, 반팔 가볍게 준비하되 겹옷은 필수로 준비하시고 신발은 운동화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2개정도면 적당합니다.

유심 칩은 한국에서 준비해가는 걸 추천합니다. 캐나다가 좀 더 비쌉니다.

고대기나 드라이기는 캐나다에 가기 전 이메일로 홈스테이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간 고대기는 발열이 안됩니다.

빅토리아에 가려면 페리와 버스를 타고 3시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해 주말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좋으면 꼭 가세요!!

한국에서 선물을 몇 개 준비해 가셔서 외국인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가는 것은 흔하지만 3주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소에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지나갈 때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 뿐만 아니라 밴쿠버 구석구석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 볼 수 있어서 캐나다는 나라에 대해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캐나다 버스에서 탈 때와 내릴 때 인사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고 타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을 자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사람들과 왕래하면서 지내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서 3주를 어떻게 버티지 라는 걱정이 컸지만 한국에 돌아온 지금은 걱정이 무색할 만큼 후회 없는 방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여행이나 휴학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다양한 길을 찾아보게 되었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 | |
|---|--|
|  |  |
| <p>잉글리시베이</p> | <p>그랜빌아일랜드 퍼블릭마켓</p> |



빅토리아 아일랜드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휘슬러



딤코브